

“간편식 열풍 ‘숨은 주역’ 고속 포장기에 있죠”

남동산단장수기업 세진테크
창업 30년 포장기계 전문업체
산단공서 개발비 지원 받아
액상음식 균일한 양 밀봉하는
‘로터리 자동 충전 포장기’ 내와

지난해 ‘300만弗 수출탑’ 수상
태국에 200만弗 납품 진행 중

가장간편식(HMR) 등 포장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고속 포장기계가 필요하다. 세진테크는 파우치(알루미늄·비닐 봉지)에 음식물을 투입하고 충전, 실링, 냉각, 배출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포장기(로터리 자동 포장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곡물류 소포장기와 자동계량기, 분체 충전기 등을 시장에 선보이면서 포장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곡물 소포장기, 국내 80% 점유
1991년 창업한 세진테크는 사업 초기 일본의 유명 포장 기업(도요지도코)과 기술 제휴를 통해 전자동 포장기 분야로 진출했다. 현재 식품용 포장기 관련 매출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식생활 변화에 따라 파우치와 레도트(고온 살균) 충전포장기 등으로 제품을 확대해 현재 생산하는 포장기계 종류만 20여 종이다.

회사 주요 제품인 ‘로터리 자동 충전 포장기’는 감자 등 점착성 식재료와 죽 찌방



이갑현 세진테크 대표가 ‘로터리 자동 충전 포장기’ 작동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김동현 기자

카레 등 액상음식을 균일한 양으로 채워 밀봉까지 자동 마무리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미리 설정된 음식 재료의 분량만큼 정량 충전이 되면서 포장 속도가 빨라 고객사의 신뢰가 높다는 평가다. 이갑현 세진테크 대표는 “포장이 두 곳에서 동시에 되는 파우치 듀얼 타입 제품의 경우 분당 50~80개 제품이 배출돼 대량 포장할 수 있다”며 “내년께 분당 100개 제품을 만드는 포장기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CJ를 비롯해 오뚜기, 동원, 풀무원 등에 제품을 납품했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곡물 자동계량 소포장기’는 회사의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쌀을 전자식으로 계량해 1~10

kg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이 포장기는 약 360대가 전국의 지역농협 등에 납품됐다. 국내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PLC(기계장치)를 움직이기 위해 로직-카운터-연산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제어장치 등 위치제어 특허 기술을 이용해 포장지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실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전지에 쓰이는 미세 탄소가루를 충전하는 분체 진공 탈기 충전기나 마스크팩 고속 자동포장기 등 특수포장 분야에도 라인업을 갖췄다.

이런 제품을 통해 2009년부터 해외시장에 수출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에 수출해 지난해

‘300만弗 수출탑’을 수상했다. 로터리 포장기는 올해 태국에서 200만달러 규모 수출이 진행 중이다.

◆“남동국가산단, 소부장 거점 될 것”
세진테크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인천 남동국가산단단지 내 대표 장수기업으로 꼽힌다. 한국산단단지공단의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수분이 많거나 점성이 높은 식품에 쓰이는 포장기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2005년부터 산단공이 진행 중인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요로의 해소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산단공이 인천시 등과 협력해 전통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 점도 중소기업들이 산단 내 장기자 자리잡은 비결로 꼽힌다.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편의시설, 물류센터 및 지원시설 건립 등 32건의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남동국가산단이 송도국제도시와 주안·부평국가산단과 연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의 거점이 될 것이라 목표도 세워진 상태다.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의 윤정목 본부장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혁신 거점”이라며 “남동국가산단 내 네트워크를 강화해 활발한 상생협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혁신 스타트업 리더들 ‘컴업’서 미래 트렌드 조망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17일부터 서울 DDP서 개최
임팩트 투자 노하우 등 공유

임팩트 투자,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와 관련된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한국 대표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는 최근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농업·식품 분야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3만 개가 넘는 식품을 분자 단위로 쪼개 머신러닝(ML)으로 분석한 뒤 대체식품을 조합해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더플랜잇도 그중 하나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와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이날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1’에 참여해 글로벌 임팩트 투자 동향과 소셜벤처 생태계에 대해 대담한다. 한 대표는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농식품같은 소셜 임팩트 분야의 ‘청업과 투자’라는 문법으로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대담 주제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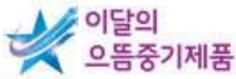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

하는 세계 5대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 하나다.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컴업에서는 12개 세션의 콘퍼런스가 열린다.

컴업 첫날에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헤시드의 김서준 대표와 블록체인 기술기업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가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담론을 나눈다. 2017년 설립된 헤시드는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그라운드엑스 관계자는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 경쟁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컴업 둘째날에는 경영주요요전 라식진이 김일도 일도씨페밀리 대표와 밀키트 시장과 푸드 딜리버리 스타트업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에는 인공지능(AI) 학습엔지니어를 서비스하는 매스프레소의 이용재 대표가 ‘국내 에듀테크가 전 세계로’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총 8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콘퍼런스를뿐 아니라 스타트업피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특별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소개했다. 김진원 기자

스마트 아트월, 거실 벽이 시간·날씨 알려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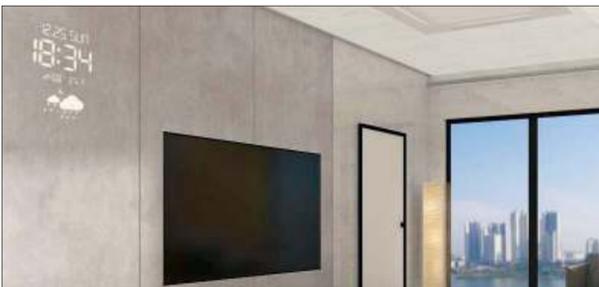


다이어, IoT 센서 탑재 ‘월스킨’
쉽게 뺐다 붙여 인테리어 효과

스마트 아트월이란 정보기술(IT) 및 디스플레이 기기를 패널 형태로 탑재해 벽면에 부착하는 장치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온도, 날씨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IoT 융합 인테리어 스타트업 다이어는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스마트 아트월 ‘월스킨’을 개발했다.

월스킨은 원터치 탈부착 결합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비전문가도 벽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 벽면처럼 인공지능(AI) 스피커, TV, 월패드 등 스마트 기기를 매립형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일반 벽 인테리어 시공처럼 현장 제작이 아닌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의 모듈러 방식인 까닭에 신축 건물이 아니더라도 기존 벽면에 덧대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월스킨은 날씨, 시계,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실내 환경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자



스마트 아트월 ‘월스킨’이 설치된 거실. 다이어 제공

체 IoT 센서를 적용했다. 이 정보를 벽면에 숨겨진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벽면의 색과 디자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나타내는 직관적인 아이콘과 숫자만 벽면에 보이는 방식이다. 월스킨 탑재 기능은 소비자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마감재 디자인은 대리석, 우드, 패브릭 등 300여 종으로 다양하다. 가정뿐만 아니라 상업·공공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연호 다이어 대표(사진)는 “철거 및 재시공이 간편해 아이방 등에 생애주기별로 벽 인테리어를 교체할 수 있다”며 “벽면이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사무실, 관공서, 회

의실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킨을 사용하면 벽면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을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본드 및 휘발성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이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과제에 여섯 차례 선정되면서 정부출연금 총 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9년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는 등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이어는 2018년 설립 이후 사람, 공간, 기술을 다 이어준다는 목표 아래 스마트 인테리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바디프랜드, 스톤브릿지캐피탈에 팔린다

VIG파트너스 지분 44% 인수
“경영권은 변동 없어”

국내 사모펀드(PEF)인 스톤브릿지캐피탈이 국내 안마의자 1위 브랜드인 바디프랜드를 인수한다.

바디프랜드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을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대상 지분은 VIG파트너스와 신한벤처투자(옛 내오플러스)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공동으로 보유 중인 지분 44.6%다. 창업주 조정희 전 회장의 사위인 강웅철 이사는 지분 40.3%를 보유한 2대주주로 남을 예정이다.

이번 매각으로 VIG파트너스와 신한벤처투자는 2015년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지 6년 만에 투자금 회수에 성공

하게 됐다. 당시 VIG파트너스는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다. 지난해부터 매각과 상장(IPO) 등 다양한 회수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올초에는 코웨이와 물말에서 매각을 논의했지만 가격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져 성사되지 못했다.

새 주인으로 낙점된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바디프랜드의 탄탄한 시장 점유율과 렌털시장의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베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대에 달한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을 통해 2호 펀드의 투자금 회수 마무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본 실사를 거쳐 12월 중순에 본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매각 금액은 본 계약 때 최종 확정된다. 차준호 기자

한솔제지, 노루페인트와 친환경 신소재 페인트 개발

한솔제지가 친환경 첨단 소재 나노셀룰로오스(CNF)를 적용한 페인트를 개발한다. 한솔제지는 노루페인트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페인트 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페인트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첨가제 개발 및 생산 등 전방위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한솔제지가 개발한 친환경 신소재 나노셀룰로오스 ‘듀라글’을 활용할 예정이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 등 식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섬유를 나노미터(nm, 1nm=10억분의 1m) 크기로 쪼개 천연 소재다. 무게는 철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다섯 배 이상이다. 3차원(3D) 그물망 구조로 돼 있어 분산 및 열 안정성, 점도 조절성, 친수성 등의 특성이 있다. 김병근 기자

한경미디어그룹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No. 1353 | 2021. 11. 1-7

한경 BUSINESS

SPECIAL REPORT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드라마 제작사들

ESG REVIEW

탄소 중립 펀드 ‘붐’... 지금이 투자 적기

글로벌 ESG 동향
기후 변화 대응에 ‘배타가스’ 활용 두고 논란 가중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기금들

떨떨 끊는 ‘월경 3사’ 역대급 실적 보인다

토스의 파격 인사 실험 통할까... 해외 사례 살펴보니

3년 만에 매출 1000억원...셀렉스 스토리

INTERVIEW 정갑윤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장
“저성장과 청년 실업 해법 지식재산에 있다”
“IoT 등 지식재산 활성화하면 새 일자리 67만 개”

한경비즈니스, NAVER 모바일에서 '구독'하세요
모바일에 더 강력한 한경비즈니스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총연식의 창치한 ‘짜옴의 기술’, 교묘한 이계명 vs 무박한 윤석열

최재미 리포트
“BTS 직관한다” 위드 코로나 기대주로 뜨는 하이브

글로벌 현상
“세계 최강” 부흥 업체 무라타, 70년 만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유

비트코인 A to Z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근간 될 NFT

지식재산권 산책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닌 저작권 이야기

magazine.hankyung.com

Magazine 한경